

DO HYUN KIM

The imPerfect Writing



NEW MEDIA ENGLISH

Chapter 1

죽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라.

-벤자민 프랭클린 -

‘모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제2 외국어 ‘습득 이론’과 ‘뉴미디어 학습’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뉴미디어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앱, 비디오 게임, 영화 등을 통해 각 단어가 가진 고유의 감정을, 맛을, 표정을 ‘입체적으로 입력’하기 위한 매체를 말합니다. New York University에서 4년간의 연구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저만의 방식으로 녹여내 만든 새로운 ‘류’의 학습 방식입니다. 중급 성인 학습자 중에 시청각 정보에 민감한 비주얼 러너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 책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NYU 유학생'으로 활동했던 김도현입니다. 벌써 4년째 그렇게 네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테니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죠.

직업은 '뉴미디어 학습 디자이너'입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기기를 통해 학습을 최적화시키는 사람이죠.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미디어 학습 방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유학 가기 전엔 컴퓨터와 반도체 공학을 전공해서 엔지니어로 미국 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2년 일을 그만두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맨해튼으로 떠났습니다.

New York University에서 영어교육 &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해서 뉴욕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새로운 학습방식을 연구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3+1년간의 학문적 배움,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험뿐 아니라 이제는 3년간 대치동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해 배움을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학습 최적화가 저의 최종 미션입니다.

Chapter 1: Introduction

네 번째 책을 시작하며	<u>7</u>
--------------------	----------

Chapter 2: Basic Structure

영작을 위한 2 가지 선택	<u>21</u>
영작을 위한 3 가지 재료	<u>33</u>

Chapter 3: Application

Application	<u>41</u>
Gourmet	<u>46</u>
Korean Cuisine	<u>48</u>
Japanese Cuisine	<u>117</u>
Drinks	<u>164</u>
Entertainments	<u>236</u>
Music	<u>238</u>
Games	<u>324</u>
Sports	<u>385</u>

Chapter 4: Becoming An Editor

Becoming An Editor #1	458
Becoming An Editor #2	471
Becoming An Editor #3	488

Chapter 5: 네 번째 책을 마치며

네 번째 책을 마치며	504
What's Next?	512

네 번째 책을
시작하며

The **im**Perfect Writing:

틀리지 않는 영어가 아니라

틀렸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책

고백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시 공부해야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수없이 질문해야 했으며, 미국인 에디터에게 140번 넘게 틀린 부분에 대해 지적 받았습니 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어를 가르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영 어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 는 여전히 영어를 배우는 과정 안에 있으며,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식으 로서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어로 무언가 쓸 때마다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항상 나옵니다. 잘 들리지 않거나 말이 나오지 않아 머뭇 거리기도 하죠.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완벽한 영어를 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이 몇 번 틀려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따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아닌지만 기억하죠. 중요한 건 틀리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솔 직히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 니다. 그러면 결국 영어를 더 좋아하고 잘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래 사진은 제가 미국인 에디터로부터 첨삭받은 글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영어를 많이 틀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Revised Text

Playing video games can provide benefits in life. For instance, games can give ~~a~~the chance to tune out the stress of everyday life. Relaxation can reduce depression and boosts memory. A number of recent studies have indicated that video games can help kids develop essential emotional and intellectual skills that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Despite ~~of~~the positive findings, heavy use of video games can have serious drawbacks. For example, researchers agree that violent video games lead to a short-lived increase in aggression. ~~The~~Re-researchers also emphasize that involving parents can minimize the problem.

미국 에디터로부터 첨삭받은 내용

지금 충분히 틀리고 있나요? 즐기고 있나요? 즐기세요. 충분히 틀리세요. 단지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해서 고쳐 나가면 됩니다. 이 것이 제가 아는 한 최고의 학습 방법입니다. 영어라는 배움에 있어서도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살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어도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일도 없죠. 당연히 영작을 하면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논리가 안 맞고 문법이나 단어도 반드시 틀리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책은 틀리지 않는 영작이 아니라 틀렸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작이란 형편없는 글을 얼마나 더 멋지게 수정할 수 있는지, 그 편집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책은 마음껏 틀리고 그 글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경험시켜주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쓴 글이 어땠는지가 아닙니다. **같은 글이 여러 번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내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집중할 겁니다.

You'll be a better writer
when you stop trying to be a perfect one.

당신이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더 나은 작가가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은 영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영어 스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읽고 싶은 글을 쓰지 못합니다. 한 번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즐겁게 영어로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작도 미친 듯이 외우면 잘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죠. 공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거짓을 여전히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글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투영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자신만의 생각 없이 그저 외워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무언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부터가 영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한 번 써보고 싶다는 그 흔한 감정은 쉽게 무시되죠. 당연히 영어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쓰는 불완전한 영작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2012년 뉴욕대(NYU)에서 라이팅 담당 교수로부터 었죠.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변호사이면서 책을 출판했고, 특유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꼼꼼한 성격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은 꼼꼼하고 실수 없는 영작이 아니라 마음껏 틀리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적는 프리-라이팅(free writing)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항상 흥미로운 그리고 논란이 되는 주제를 제시하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관련 기사를 읽고 토론을 했으며, 수업 후반에는 5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을 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종이에 썼습니다. 그렇게 쓴 글은 다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쓴 글을 다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다시 수정했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쓴 글과 마지막에 수정된 글을 서로 비교하며, 같은 글을 다시 쓰며 한 번씩 옮겨질 때마다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쓰기 수업에서 쓰는 시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쓰기를 ‘준비하는’ 시간과 ‘후반 고치는 작업’에 집중했죠. 주제에 대한 흥미를 올리기 위해 관련 글이나 영상을 보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과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왜 라이팅 수업에서 쓰는 시간을 짧게 줬을까요? 글은 항상 시작이 어렵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죠.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글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라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죠. 특히 영어로 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은 동기를 높이기 위해 사전 작업은 길게, 그러나 시작에 대한 두려움은 떠오르지 못하도록 쓰는 시간은 아주 짧게 가져간 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글을 쓰고 싶도록 만드는 사전 작업, 그리고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후반 편집 작업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 수정을 통해 처음 메모 수준의 글이 논문 수준의 글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영작에 대한 두려움은 유독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영어를 공부로만 배우기 때문입니다.** 영작을 글쓰기라는 창작 활동이라기보다는 공부 즉, 영어 시험과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이죠. 틀린다는 건 즉시 감점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선 오랜 시간 ‘틀리지 않는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 못된 생각이었죠.

틀리지 않는 영작은 글쓰기 과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인 **생각의 확장**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영어로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죠. 반대로 마음껏 틀려도 되는 불완전한 영작은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장의 구조뿐 아니라 **생각의 확장**도 이루어 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으면 문법과 철자, 그리고 논리적 오류나 정보의 빈약함이 그대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험처럼 한 번에 써서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즐겁게 그것이 어떻게 더 멋진 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지 계속 수정하며 보완해 나가는 거죠. 시험처럼 감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얼마나 더 가점을 받을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글이란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영작이란

영어로 무언가 쓰는 것이 아니라
쓴 글을 고치는 작업이다.

배움에 대해 솔직해 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는 척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하길 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는 척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모든 남성은 항상 운동을, 여성은 항상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무언가 열심히 하는 척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식스팩이 없고 다이어트하는 사람의 몸무게는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죠. 남들에게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거짓 행동은 멈추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영어로 생각하고 배우길 원합니다. 영어를 가지고 놀며 즐기다 틀리고 망쳐보길 원합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배움 자체에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영어라는 도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즐겁게 그리고 잘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잘하는 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배움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영어를 좀 아는 척하는 것은 배움을 멈추게 하는 최악의 태도임을 기억하세요.

진실을 말합니다. 세상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글을 잘 고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러한 과정은 즐겁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주제로 해야 즐거울 뿐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진심이 담긴 글을 쓰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세요. 좋아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좋아서 계속하게 되면 결국 잘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적절한 자극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으며 같은 마음으로 쓰고 싶다는 감정과 연결할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쓰면서 틀리고 수정하기를 반복할 겁니다.

제가 했듯이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같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즐거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더 멋지게 해결할지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Chapter 2

영작을 위한

2 가지 선택

우리는 앞서 심리적인 이유, 즉 쓰고 싶다는 감정이 없어서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글을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영어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미 영작을 어느 정도 해본 중급 자라면 이번 파트를 생략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Chapter 3에서도 해당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단지 영작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 파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중심이 동사라는 말은 많이 아실 겁니다. 문제는 알고있을 뿐 동사를 중심으로 영어를 쓰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단순화시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에서 문장 구조는 크게 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be동사'가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이죠.**

즉, 문장에 일반 동사로 주인공인 주어가 동작을 할지 아니면, 'be동사'를 통해 움직임이 없이 주어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언어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be동사'를 쓸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영작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어의 중심인 동사, 그중에서 'be동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be동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be동사'에 대해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 am, You are, He is**'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러나 이는 'be동사'의 종류를 단순히 나열한 것일 뿐 이해한 건 아닙니다. 당황스럽겠지만 'be동사'는 사실 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용어로 보면 ‘be 동사’라서 동작을 나타내는 ‘run, drive, like’ 같은 일반동사와 혼동하기 쉽지만, 사실 동작이 없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be 동사’는 단순히 주인공의 상태/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문장에서 움직임의 줄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다.

‘A = B이다’ 같이 수학 기호처럼 나타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상태나 정의를 말하죠. 주인공인 주어에 대해 ‘그는’ = ‘학생’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죠.

My car **is** red.

나의 차는 빨간색이다.

이번에도 상태/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는 ‘나의 자동차’이며, 이에 대한 상태가 ‘빨간색’이라는 단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적이며 주어인 자동차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죠. 여러분이 영작을 할 때 주어의 움직임이 없는 내용, 즉 주어에 대한 설명은 ‘be 동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구조에 대한 결정이 빨라집니다.

추가로 ‘be동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뜻, 느낌에 대한 설명도 해보죠.

‘be동사’의 뜻을 흔히 한국어로 ‘~는/~은’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 못된 해석입니다. ‘be동사’의 본래 뜻은 ‘~로서 존재하다/ ~이다’에 가깝죠. ‘be동사’의 역할인 상태나 정의를 알리는 일과 뜻이 일치합니다.

단지, 한국어 해석은 ‘나는 학생으로 존재하다’처럼 전체 뜻을 밝히지 않고 ‘나는 학생이다’로 간단히 해석할 뿐이죠.

잘못된 해석인 ‘~은/는’을 ‘be동사’의 뜻으로 오해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희 기초반 학생들에게 영작을 해보라고 하면 한국어 문장만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문장을 쓰죠.

그들은 수영을 매우 잘 한다.

They **are swim** very well.

그는 (춤을) 매우 잘 춘다.

He **is dance** very well.

‘be동사’의 뜻을 ‘~은/는’이라고 배운 경우 ‘swim, dance’ 같은 일반 동사가 있는 데도 ‘be동사 - are, is’를 함께 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국어 문장에서 ‘그들은/그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은/는’이라는 뜻으로 배운 ‘be동사’ ‘**are/is**’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 ‘He is’라고 쓰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동작을 말하는 일반 동사를 다시 추가하는 실수를 하는 거죠.

만약, ‘They **are swim** very well.’ 문장을 억지로 해석하면, ‘그들은 수영을 매우 잘한다이다.’라는 이상한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dances’라고 하지 않고 ‘dance’처럼 동사와 주어 간의 수 일치도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be동사’는 ‘~상태로 존재하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움직임이 없는** 동사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인 주어가 ‘노래하다, 춤춘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sing, dance’ 같은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선택해 아래 문장처럼 써야하죠.

그들은 수영을 매우 잘 한다.

They **swim** very well.

그는 (춤을) 매우 잘 춘다.

He **dances** very well.

그냥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중요한 기초 과정을 대충 배우기 때문에 문장을 쓰지 못합니다. 외울 내용이 나 논리적인 어려움도 없지만 정작 문장을 쓰라고 하면 시작도 못하죠. 그 이유가 어려운 어휘나 문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영어 수업 첫날 첫시간에 배우는 ‘be동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be 동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종류만 외우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배움에서 가장 큰 장애는 실제로는 아닌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은 실제 저희 학원 학생이 아이돌 그룹, 'Wanna One'을 소개하는 문장을 쓴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be동사'와 일반동사를 같이 사용하는 실수를 보여 주고 있죠. 이것을 고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3. Wanna ~~one~~ ~~is~~ dances very well.

유니원원 ^{춤을} 되게 잘 춰다.
~~아이돌~~

4. Wanna ~~one~~ ~~is~~ sings very well.

유니원원 ^{노래를} 되게 잘 한다
~~아이돌~~

추가로 ‘be동사’와 관련해서 ‘be + -ing’라고 배우는 현재 진행형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건데요. ‘-ing’는 주로 진행 중이거나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 ‘be + -ing’ 형태로 쓴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단어를 동사로 선택할 것 같으세요?

He is swimming.

‘be동사’는 ‘~로 존재하다’는 뜻으로 구성요소로는 무조건 동사로 분류됩니다. 영어를 배우는 첫 시간에 ‘be 동사’를 가장 먼저 배우고 용어도 동사라고 언급하고 있죠. 때문에 학생들이 당연히 ‘is’를 동사라고 선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swimming’을 선택합니다. 문장을 해석하면서 ‘수영하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고 ‘be동사’보다 동작의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swimming’을 동사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장은 ‘be동사’를 통해 ‘그가 수영하는 중인 상태/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즉, 움직이고 있는 모습/상태를 정적인 틀에 넣어 ‘설명’ 하기 위한 문장에 가깝죠.

다시 말하면, 주인공을 매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이 ‘동영상’이라면, ‘be -ing’는 움직이는 모습의 한 순간을 찍은 정적인 스냅 샷(snapshot)에 가깝습니다. 아래 사진처럼요.



출처:<https://www.pinterest.com>

진행형은 ‘be동사’가 있는, 그래서 순간적인 상태나 상황을 정적인 틀에 넣어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be동사’에 대해 혼동 없이 실제 영작에서 구조에 대한 판단을 쉽고 빠르게 내릴 수 있죠.

사실 초급자를 위한 문장 구조 결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은 주인공을 움직이지 않고 설명할지, 아니면 주어에 동작을 줄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be동사'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주어에 동작이 없는 상태/정의를 설명하려면 'be동사'로, 주어가 일반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이 필요하면 일반 동사가 있는 구조로 결정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딱 잘라 규칙으로 다 설명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영작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대한 단순화시켜 설명드렸습니다.

차별화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단순함을 만듦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 애플 수석 디자이너 조너던 아이브 -

영작을 위한

3 가지 재료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Chapter 3

Application

영작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글로 쓰인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마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책 사용 방법 Tips #1]

편의를 위해 이 책에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단어나 표현을 모두 굵게 ‘bold’ 처리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더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나 문장은 각 파트 뒤에서 영작을 위해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에버노트나 원노트 같은 앱, 또는 노트에 정리해 두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나 숙제처럼 읽고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해당 내용을 뒤에서 반드시 다시 쓸 것이기 때문이죠.

배운 내용을 다시 쓰게 된다는 걸 알고 입력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배움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영작을 위한 에버노트 사용법은 아래 제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runch.co.kr/@dohyunkim/26>

[김도현 뉴미디어 영작노트](#)

영작연습, 영어일기 그만 쓰고 에버노트를 써라

영어작문 실력 향상을 위한 에버노트 사용법은 따로 있다 |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영작을 위한 에버노트 사용법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영어강의와 뉴미디어 학습법을 공유하...

공유3,321 · 댓글26 · Oct 21, 2015



[책 사용 방법 Tips #2]

이 책의 모든 사진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Book은 책 자체에 필기, 밑줄, 하이라이트, 자동 단어장 만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PDF 버전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찾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를 통해 추천 PDF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추천 PDF 앱:

1. PDF expert:

<https://pdfexpert.com>

2. Adob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dobe.reader&hl=en>

[imPerfect Writing을 진행하는 과정]

1. 책에서 제공하는 주제 관련 타깃 문장 쓰기.
2. 타깃 문장에서 처음에 배로 쓸 수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을 확인
3. 주제와 관련된 영상, 대화, 글을 입체적으로 입력
4. 영상/글 등을 보면서 타깃 문장을 쓰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 + 표현(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인데 영어로 몰라서 못 쓴)을 표시
5. 중요한 단어나 표현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노트에 저장
6. 영상이나 글을 통해 새롭게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처음에 쓰지 못한 타깃 문장을 다시 쓰기.
7. 더 영어적인 표현이나 흥미를 높여줄 정보가 있다면 추가하며 글을 여러 번 반복 수정.



SECTION #1

GOURMET

음식은 각 나라의 문화와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 문화나 재료에 대한 내용은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 교육, 정치와는 달리 언제나 안전한 주제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입력하고 입체적인 출력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볼 겁니다.

[Section #1 Gourmet]

1 Korean Cuisine

2 Japanese Cuisine

3. Drinks



PART 1

KOREAN CUISINE

한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2016 이후 가장 트렌디한 음식에 한식이 소개될 정도죠.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외국인까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국인에게 한식에 대해 물어보는 외국인이 많아졌습니다. 한식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혹시 삼겹살 좋아하세요? 그럼 삼겹살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음식 이름이니 발음 나는 데로 삼겹살 구이(Samgyeopsal-gu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서 말하면 ‘grilled pork belly: 구운 돼지고기 배부분’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에는 삼겹살을 영어로 몰랐습니다. 아쉽게도 음식은 일상에서 매일 세 번 이상 일어나는 일인데 관련된 내용을 영어로 배울 기회가 없었죠. 여러분도 매일 먹는 한식에 대해서 조차 영어로 제대로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을 영어로 쓸 수 있도록 배워 볼 겁니다.

[imPerfect Writing 도전!]

모든 단원마다 주제와 관련된 타깃 문장을 제시할 겁니다. 아래 타깃 문장을 실제로 써보면서 쓸 수 있는 부분과 쓰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나 표현은 항상 볼드체로 되어있습니다.

1. **삼겹살은 정말 끝내주게 인기 있는 한국 요리이다.**
2.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과 함께 마늘, **파무침**, **쌈장**을 신선한 **상추**에 넣어서 먹는다.
3. 삼겹살은 주로 많은 야채들과 함께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은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이다.

배고픔 주의!

이번 파트의 최대 적은 배고픔입니다. 음식관련 주제를 배우는 동안에는 식사를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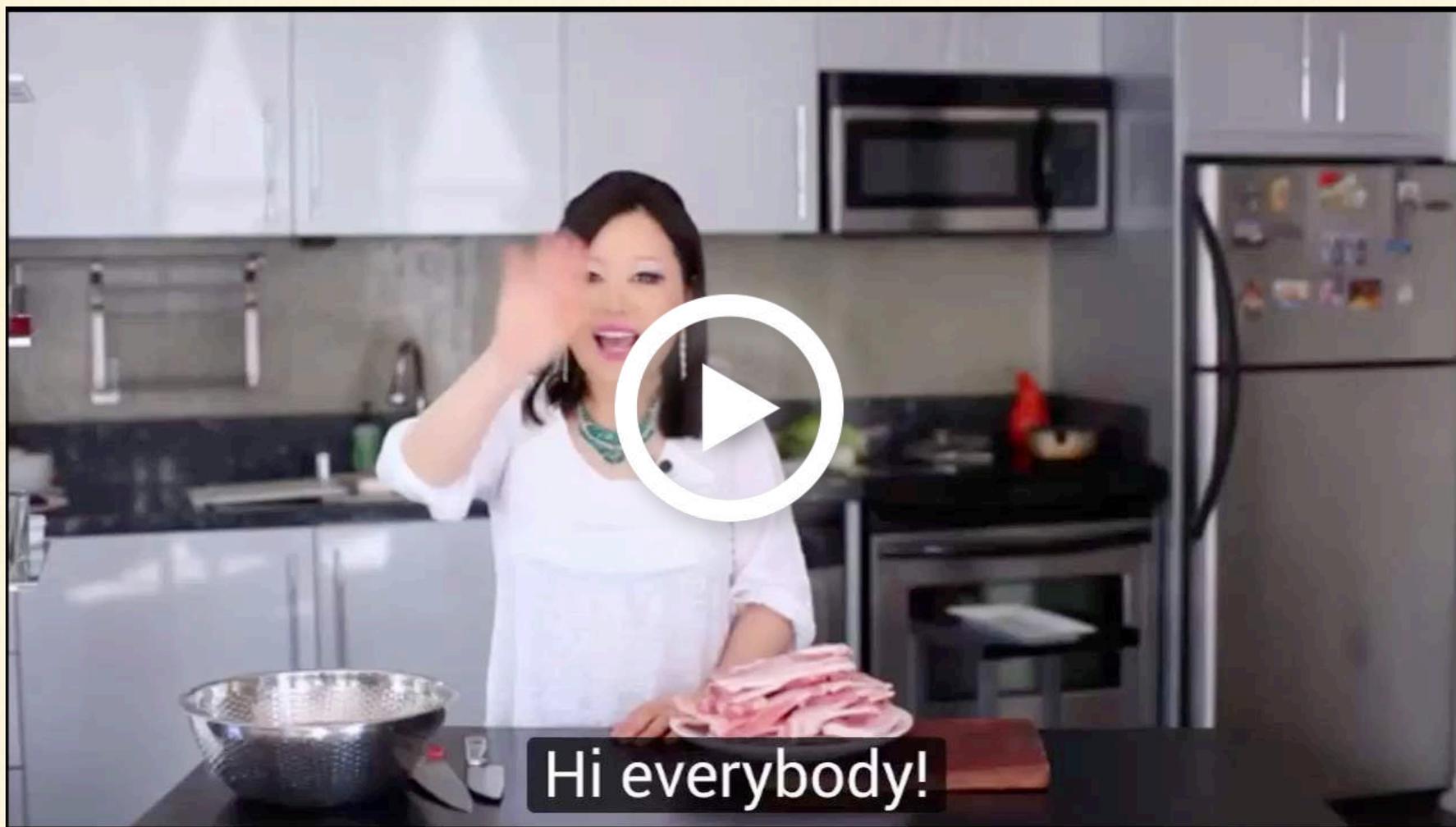
[영상을 통한 입체적인 입력]

앞서 타깃 문장은 확인하셨나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문장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영상과 글 등을 통해 그 확실한지 않았던 부분, 빈 공간을 채워 나갈 겁니다.

이번에 볼 영상은 유튜버 ‘Maangchi’님이 삼겹살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동작, 재료 이름 등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음식 재료는 사실 그 음식이 처음 들어온 나라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로 일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가 자주 나오죠. 대부분 아시아 요리 재료는 일본어로 많이 불리고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더 잘 들릴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들리지 않았던 부분, 특히 평소에 사용하고 싶었으나 몰라서 못 썼던 표현을 중심으로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책에선 모든 영상에 대해 자막과 해석을 함께 제공하니 들리지 않았던 부분도 모두 자막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는 앱이나 노트에 기록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출처: *Maangchi*

전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3tRGHUX3qM>

[영상 자막]

삼겹살에 대한 영상은 즐겁게 보셨나요? 이제 자막을 참고해서 자신이 듣지 못한 내용, 또는 타깃 문장에서 쓰려고 했는데 몰랐던 표현을 찾아보세요.

Hi everybody! Today, let's cook pork belly! **Grilled pork belly**, in Korean: 'samgyeopsal-gui'. Samgyeopsal-gui is a very **popular dish in Korea**. The best thing about this dish is that **you can cook at the table** and eating with your friends.

M : Soy sauce. Sugar. **Sesame seeds**. Lots of sesame seeds.

This is hot **pepper flakes**.

J : Hot pepper flakes.

M : Mhm, and **sesame oil**.

M : Okay, **green onion** and **garlic**. Fermented **soybean paste**.

J : Nice.

M : This is **hot pepper paste**.

J : Maangchi, What are these? They're so pretty.

M : This is **perilla leaves**, you can taste it.

J : Should I **flip** one, this guy, **over**, maybe?

M : No, I think **we gotta wait until bottom part is a little like crispy**.

J : Crispy, okay. M : Yeah.

M : Just like bacon.

J : **Green onion salad**.

J : And that's it?

M : Yeah, and then **wrap this**, make the nice pouch.

J : **All in one?**

[자막 해석]

Hi everybody! Today, let's cook pork belly! **Grilled pork belly**, in Korean: 'samgyeopsal-gui'. Samgyeopsal-gui is a very **popular dish** in Korea. The best thing about this dish is that **you can cook at the table** and eating **with** your friend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삼겹살을** 요리해 보죠. Grilled pork belly는 한국어로는 '삼겹살 구이'라고 합니다. 삼겹살 구이는 한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이 음식에서 최고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서 바로 요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M : **Soy sauce**. Sugar. **Sesame seeds**. Lots of sesame seeds.

M: 간장. 설탕. 참깨. 참깨 많이.

This is **hot pepper fla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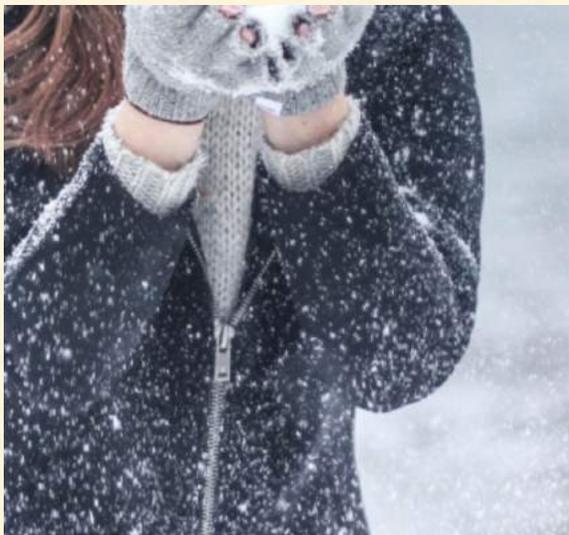
이건 **고춧가루** 입니다.

J : Hot pepper flakes.

J: 고춧가루요.

M : Mhm, and **sesame oil**.

M: 그리고 참기름.



*flake는 흩날리는 가루 같은 모양을 말합니다.
고춧가루를 hot pepper **flake**라고 하는데요.
고춧가루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겨울에 눈 꽃
처럼 날리는 것은 '**snowflake**'라고도 합니다.

단어의 한국어 뜻이 아니라 그 느낌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M : Okay, **green onion** and **garlic**. **Fermented soybean paste**.

M : 네, 파, 그리고 마늘. 발효된 콩 페이스트(된장)

M : This is **hot pepper paste**.

M : 이건 **고추장** 입니다.

J : Maangchi, What are these? They're so pretty.

J: Maangchi, 이것들은 뭐죠? 그것들은 너무 예쁜데요.

M : This is **perilla leaves**, you can taste it.

M : 이건 **갯잎**인데, 맛 한번 보세요.



*치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tooth-paste**라고 합니다. 치약같은 질감을 가진단어가 **paste**죠. 그래서 된장, 고추장같은 소스를 '**bean paste, hot pepper past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된장을 '**soybean paste source**'처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영어적인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영어권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엿볼 수 있으니까요.

J : Should I **flip** one, this guy, **over**, maybe?

J : 제가 이걸 **뒤집어**야 좋을까요, 아마도?

M : No, I think we gotta wait **until bottom part is a little like crispy**.

M :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바닥이 약간 바삭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해요.

J : Crispy, okay.

J : 바삭하게요. 알겠어요.

M : Just **like** bacon.

M : 마치 베이컨 **처럼**요.

J : **Green onion salad.**

J : 파 무침.

J : And that's it?

J : 그리고 그게 다인가요?

M : Yeah, and then **wrap this**, make the nice pouch.

M :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싸서**, 멋진 동전지갑 처럼 잘 만드세요.

J : **All in one?**

J : **한번에 넣나요?**

이제 삼겹살이라는 우리의 관심사와 영어 작문이라는 학습 목표를 연결할 때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기준으로 자신의 의견을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도전해 볼 건데요. 글은 읽을 대상을 알아야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정을 넣어서 써볼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 외국인 친구나 동료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고 가정해서 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외국에 직접 나갈 일은 없더라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사진과 함께 3~5 문장 정도 영어로 음식을 소개하는 거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미식가를 영어로 'foodie'라고 합니다. 세상엔 많은 'foodie'들이 있고 한식에 대한 관심도 많을 테니 영어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들과 국가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Be Noticed!]

이 책에는 영어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해석은 어색하지만 영어 어순으로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를 실전에서 쓰고 듣고 말하기 위해선 한국어 해석은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자연스러운 생각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장을 정확히 영어 어순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과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색한 해석이 주는 단점보다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영어 어순을 지켰습니다. 영어적인 해석이나 글쓰기 순서에 대한 설명은 뒤로 가면서 하나씩 추가로 설명해 나갈 겁니다.

영어 어순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그 이유, 그리고 한국어와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선 4:17초부터 해당 설명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youtu.be/Gik3Vwn7g7g?t=4m17s>

[글을 통한 입체적인 입력]

좋은 글을 쓴다는 건 모든 영역과 감각을 통해 입체적으로 입력한 내용이 입체적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조합하는 것이 기본이죠.

앞서 본 삼겹살 관련 영상과 똑같은 내용을 글로도 읽어 볼 건데요. 이미 관련 영상을 봤기 때문에 보기 전 보다 글이 더 잘 읽혀질 겁니다. 이런 방식을 ‘advanced learning’이라고 하죠. 미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서 관련 내용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글을 읽을 때는 마치 영상에서 본 사람의 목소리가 글만 봐도 들리고, 그때 본 장면이 떠올라 정보 간의 강한 연결성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학습 효과와 즐거움은 향상됩니다.

*참고로 글에도 **중요한 부분은 굵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문에 대한 한글 해석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겹살 소개 지문 #1]



출처: <https://www.maangchi.com/recipe/samgyeopsal-gui>

Grilled pork belly (Samgyeopsal-gui) is an **extremely** popular Korean BBQ dish. Because **the cooking and eating is done at the table, it's really social** and a great party food. It's also pretty **simple to make**, and because everyone pretty much helps themselves it's easy to serve, too.

Nobody can resist the taste of samgyeopsal gui! **When your guests eat the pork belly with garlic, green onion salad and ssamjang in a fresh lettuce leaf, they'll be instantly hooked!** Samgyeopsal-gui **is usually served with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well-rounded meal.**

[삼겹살 소개 지문 #1 해석]

Grilled pork belly (Samgyeopsal-gui) is an **extremely popular Korean BBQ dish**. Because **the cooking and eating is done at the table**, it's really social and a great party food. It's also pretty **simple to make**, and because everyone pretty much **helps themselves** it's easy to serve, too.

불판에 구운 삼겹살(삼겹살-구이)은 끝내주게 인기 있는 한국의 바베큐 요리입니다. 조리과 식사가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사교적이고 훌륭한 파티 음식이죠. 그 것은 또한, 매우 간단하게 만들수 있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스스로 먹기(help themselves) 때문에 서빙 역시 쉽습니다.

Nobody can resist the taste of samgyeopsal gui! **When your guests eat the pork belly with garlic, green onion salad and ssamjang in a fresh lettuce leaf**, they'll be instantly hooked! Samgyeopsal-gui **is usually served with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well-rounded meal**.

아무도 거부할 수 없죠 삼겹살 구이 맛을! 당신의 손님들이 삼겹살과 함께 마늘, 파무침, 그리고 쌈장을 신선한 상추에 먹을 때, 그들은 즉시 매료될 겁니다! 삼겹살 구이는 주로 많은 야채와 함께 제공되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죠.

전체 글과 영상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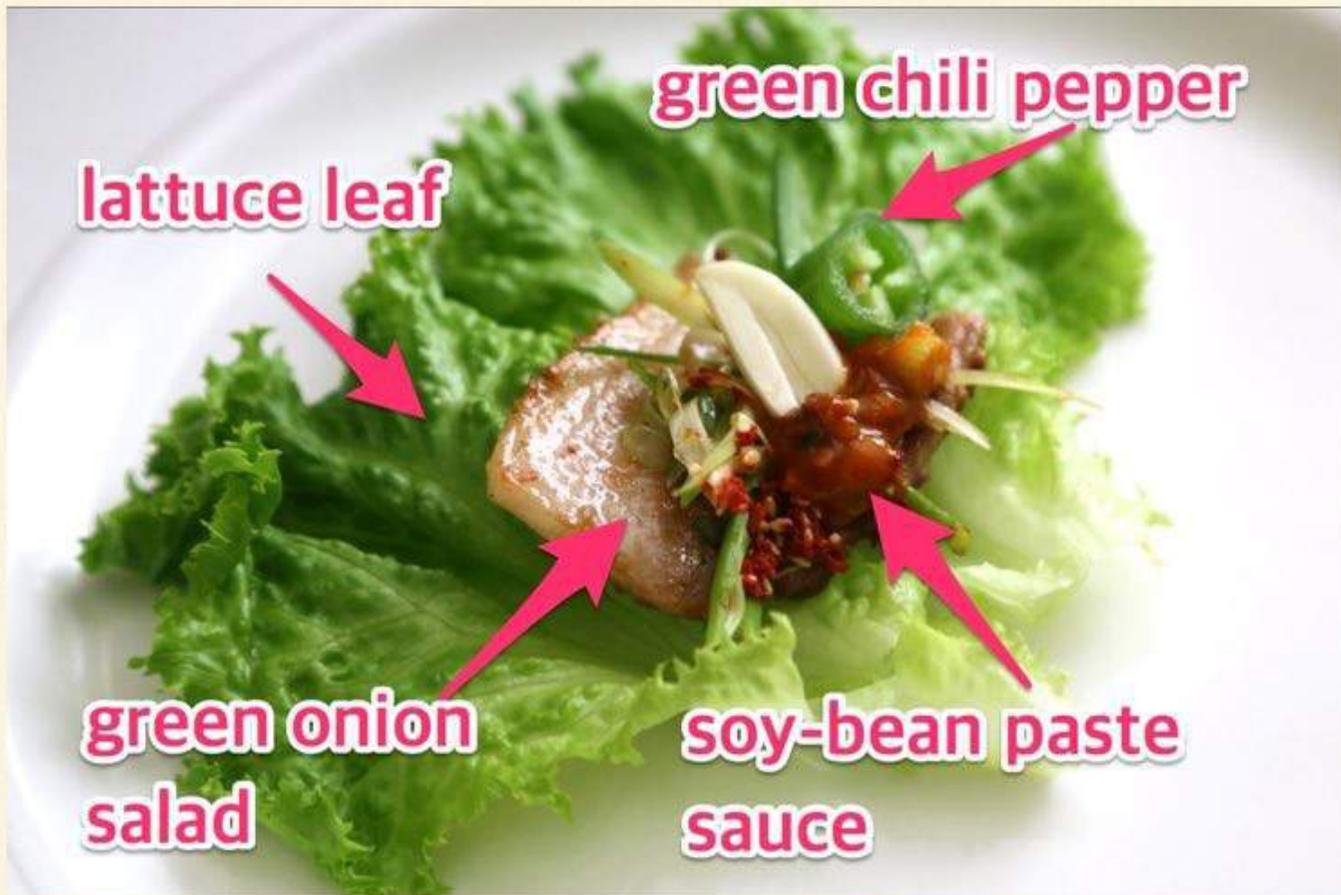
<https://www.maangchi.com/recipe/samgyeopsal-gui>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사진을 통한 입체적인 입력!]

글로만 보서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연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리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텍스트 + 비주얼 정보를 함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imPerfect Writing 구성 방식 설명]

방금 글과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문장에 적용해서 수정되는 과정을 하나씩 확인할 겁니다. 전체 과정은 **타킷 문장 확인 -> 불완전한 영작 -> 수정 1 -> 수정 2 문장**을 거쳐가며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선 **‘오류 문장’**은 입체적인 입력을 하기 전,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쓸 것같은 문장입니다. 단지 문법적, 단어나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제가 있는 문장으로 해당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정 1’로 표시된 문장은 ‘불완전한 영작’에서 틀린 부분과 표현을 단순 교정한 겁니다. 초급자를 위한 문장으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수정 2’는 ‘수정 1’문장에서 더 좋은 단어나 구조적인 선택을 적용한 겁니다. 각 단어가 가진 고유의 뉘앙스에 대한 설명까지 다루는 중급자용 문장입니다. ‘수정 1’과 ‘수정 2’를 통해 새롭게 **수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수정이 필요없는 경우 ‘수정 1’ 문장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mPerfect Writing 재도전!]

1. **삼겹살은 정말 끝내주게 인기 있는 한국 요리이다.**
2.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과 함께 마늘, 파무침, 쌈장을 신선한 상추에 넣어서 먹는다.
3. 삼겹살은 주로 많은 야채들과 함께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은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이다.**

1) **삼겹살**은 정말 **끝내주게** 인기 있는 한국 요리이다.

오류 문장: **삼겹살** really popular Korean food.

수정 1. **Grilled pork belly is a** really popular Korean food.

*‘grilled pork belly’같이 음식에 대한 단어나 표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또한 동사를 정하지 못하거나 오류 문장처럼 동사를 빼먹기도 합니다. 수정 1 문장 처럼 ‘삼겹살’ = ‘음식이다’라는 의미는 주어의 동작 없이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동작이 없는 ‘be 동사 - is’를 써주면 됩니다.

수정 2. Grilled pork belly is **an extremely** popular Korean **dish**.

*한국 사람은 ‘really’를 너무 좋아합니다. 강도가 높은 표현이 필요하다면 ‘extremely: 끝내주는’을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Korean food’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food’는 먹는 음식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준비나 조리과정을 거친 요리/반찬은 ‘dish’라는 단어를 쓰죠. 생쌀이나 치즈 우유를 ‘food’라고 할 수 있지만 조리과정이 없으니 ‘dish’라고 하진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과 함께 마늘, 파무침, 쌈장을 신선한 상추에 넣어서 먹는다.

오류 문장: Korean people eat grilled pork belly, garlic, 파무침, and 쌈장, fresh 상추 together.

수정 1. Korean people eat grilled pork belly, garlic, green onion salad, and soy-bean paste sauce, and fresh lettuce, together.

*음식 재료(ingredients)를 영어로 모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매일 먹는 ‘마늘, 양파, 상추, 파, 된장’ 같은 재료는 영어로 알고 있어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단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놀면서 배우는 게 단어 책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수정 1. Korean people eat grilled **pork belly**, garlic, green onion salad, and soy-bean paste sauce, fresh lettuce **together**.

수정 2. Korean people eat grilled pork belly **with** garlic, green onion salad, and soy-bean paste sauce **in** a fresh lettuce leaf.

*앞서 수정 1 문장처럼 ‘together’를 쓰면 고기와 야채, 상추를 함께 먹는다는 의미죠. 그러나 ‘상추 안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서 먹는다’는 느낌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먹어지는 대상은 삼겹살로 정해주고 이와 ‘**함께 곁들이는**’의 의미를 주기 위해 ‘**with**’를 추가했습니다. 곁들여지는 야채가 있는 장소를 ‘상추 속’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영어 어순에 따라 위치를 알리는 전치사 ‘in: ~안에’을 먼저 쓰고 + 장소인 ‘a fresh lettuce leaf : 상추 잎’ 순서로 써주면 됩니다.

참고로 영어는 장소보다 장소의 위치 즉, ‘**안/밖/위/아래**’처럼 위치를 **장소보다 먼저 언급하고 실제 장소를 씁니다**. 예를 들어, ‘학교로’라고 한국어로 말하지만 영어로는 ‘~로 + 학교 -> to the school’ 순서로 쓰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삼겹살은 주로 많은 야채들과 함께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은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이다.

오류 문장: Grilled pork belly usually **give**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균형이 잘 잡힌 food/dish**.

수정 1. Grilled pork belly **is** usually **served with**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good dish.

*한국어로 생각하면 주어가 동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반동사를 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위에 문장처럼 '**Grilled pork belly** usually **give**'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동작을 하는 주어가 '삼겹살'이 되므로 일반동사를 쓰면 삼겹살이 사람처럼 야채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삼겹살은 야채와 함께 제공된다고 해야 맞죠. 즉, 'is + served'처럼 제공되는 상태/상황을 말하는 'be 동사 + 형용사 형태(-ed/PP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정 1. Grilled pork belly is usually served with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good dish**.

수정 2. Grilled pork belly is usually served with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well-rounded meal**.

*수정 1 문장에서 'good dish'처럼 애매하게 표현하는 대신 '**well-rounded meal**'라는 '전체적으로 고른, 균형 잡힌 정찬'으로 변경했습니다. 'round: 원형 태두리가' + 'well: 잘, 제대로'라는 뜻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즉, '찌그러짐 없이 고른 = 부족함 없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잘 짜인 한 끼 식사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 뿐 아니라 사람이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날 때도 'a well-rounded person/student'처럼 표현합니다.

'food/dish'대신 'meal'이라는 단어로 수정한 이유는 '**meal: 정찬**'으로 일반적인 요리를 말하는 'dish'와는 차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맥도널드 'Happy Meal'도 단품이 아니라 한 끼 차려진 정찬이라는 표현에서 온 겁니다.



출처: <https://www.elmundo.es>

‘meal’에 대해 조금 더 보면, 위에 사진처럼 ‘meal’은 식사나 밥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찬 느낌에 가깝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과 영양소가 고르게 섞여있는 거죠. 한국에서 주로 단품 말고 정식처럼 국 + 밥 + 여러 종류의 반찬 + 디저트 이런 것이 함께 나오는 세트 개념입니다.

[최종 수정된 문장 확인]

1. 삼겹살은 끝내주게 인기있는 한국 요리이다.

1. Grilled pork belly is **an extremely** popular Korean **dish**.

2.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과 함께 마늘, 파무침, 쌈장을 신선한 상추에 넣어서 먹는다.

2. Korean people eat grilled pork belly **with** garlic, **green onion salad**, and **soy-bean paste sauce in** a fresh lettuce leaf.

3. 삼겹살은 주로 많은 야채들과 함께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은 균형이 잘 잡힌 한끼 식사이다.

3. Grilled pork belly is usually served with a lot of vegetables, so in general it's **a well-rounded meal**.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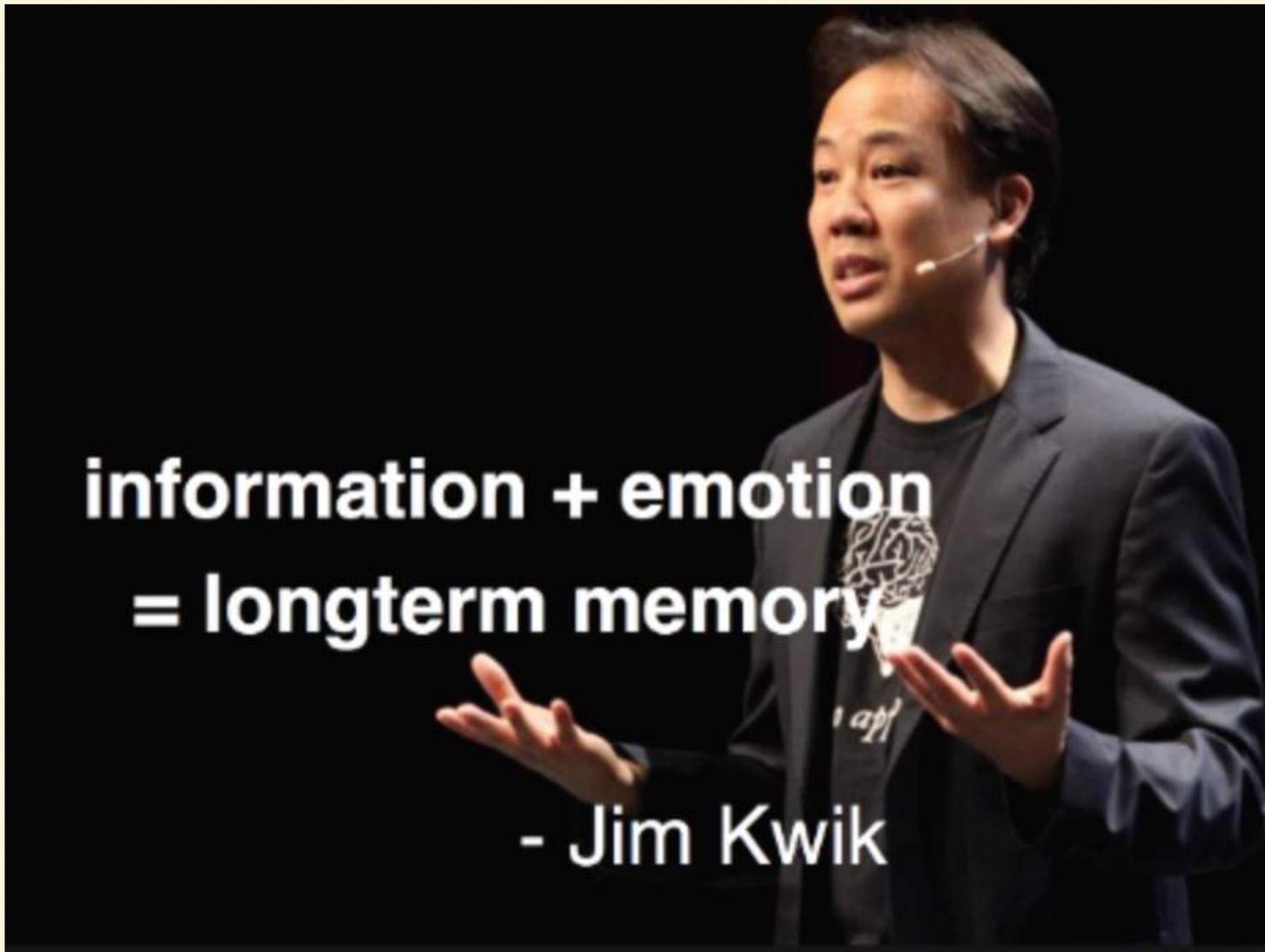
PART 2

JAPANESE CUISINE

외국에선 한국 요리보다는 일본 요리가 더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합니다.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한국 음식은 가성비가 높고 건강식이라고 생각된다면, 일식은 뭔가 장인 정신이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 음식과 자주 비교하게 되기도 하죠. 일식과 한식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등을 영어로 쓸 수 있도록 배워 볼 겁니다.



일본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역시 초밥(sushi)입니다. 날 생선을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요리 과정보다는 먹는 방법이나 식감같이 맛에 대한 표현을 영어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영상을 통해 시청각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 글을 통해 문자 정보를 연결하는 입체적인 입력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초밥을 실제로 먹으면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경험이 간접 정보와 연결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학습 효과나 기억력과 관련된 대한 설명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인지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죠. 특히 정보(information)와 + 감정(emotion)이 만나면 = 장기기억(longterm memory), 추억으로 남아 잊히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언어를 공부로 그리고 외우려고만 하면 감정 정보가 누락되어 정보 간에 연결성이 떨어지고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단어를 외우는 데 사용하면서 나중에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어휘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그 오랜 핑계가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는 경험을 배우는 겁니다.

[imPerfect Writing 도전!]

아래는 이번 파트에서 배울 타깃 문장입니다. 아래 문장 중에 쓰려고 했지만 모르는 단어, 구조가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을 찾아 표시를 하세요. 그 작은 활동 하나가 뒤에서 마주치게 될 내용을 볼 때 내가 필요한 내용을 더 잘 들리고 보이도록 인지력을 높여 줄 겁니다.

1. 초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2. 미국에서 가장 흔한 초밥은 참치, 성게, 연어, 그리고 방어 초밥이다.

3. 참치 부위는 지방이 포함된 정도에 따라 구별/분리된다. 4. 보통은 지방이 더 많으면 더 맛있고, 지방이 더 많으면 더 비싸다.

5. 초밥은 밥과 생선의 균형이 딱 맞아야 좋다.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PART 3

DRINKS

우리는 정보뿐 아니라 문화를 배우고 영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문화를 소개했으면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죠. 이번 섹션에선 영어권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에 대해 배워 보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와 맥주에 대해 배워보죠.



저는 유학 전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 커피를 매일 마시게 될 거라던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뉴욕에서 1년 정도 지나자 제 손에는 벤티 사이즈의 커피가 매일 아침 들려져 있더라고요. 돈이 없을 때는 길거리에서 파는 \$1 커피부터 약간 비싸지만 깊은 맛의 La Columbe(라-콜롬브) 라떼까지, 다양한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사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셔지는 것이 물 다음으로 커피입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다 보니 저도 맛이나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파트에선 함께 커피 관련 내용을 써보려고 합니다.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PART 2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은 문화의 한 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비디오 게임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그리고 여성분들이 패션에 대해 얘기하며 친해지듯이 요즘에는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게임에 대한 장단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은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이번 파트에선 비디오 게임 장르에 대한 소개와 비디오 게임이 주는 장단점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FIFA WORLD CUP
RUSSIA
2018



PART 3

SPORTS

Entertainment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가 빠질 순 없겠죠. 직접 하는 것부터 보는 즐거움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축구, 야구 같은 인기 종목부터, 겨울 올림픽에서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애정도 높죠. 이러한 내용을 영어로 배우고 쓸 수 있다면 영어 학습에서 즐거움은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번 섹션에선 스포츠를 통해 영어를 배워 볼 겁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사실 e-sports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는 역시 축구죠. 특히, 러시아 월드컵에선 한국과 독일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인기도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기간에는 해외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골키퍼 조현우 선수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영상과 글 등을 통해 직접 배워 보겠습니다.

[imPerfect 영작 도전!]

아래는 스포츠 관련 내용에서 자주 보게 될 표현을 담고 있는 이번 파트의 타깃 문장입니다. 먼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1. 독일이 월드컵에서 다음 경기로 가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조현우 때 **문**이었다. 2. 그는 경기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3. 그는 공을 **흘리**거나 **놓치**지 않았다. 4. 그는 **침착**했고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중요한 **선방**들을 만들었다. 5. 독일은 여러 번의 **날카로**운 슈팅들을 만들었지만 조현우는 **무실점** 기록을 유지했다. 6. 그는 국제무대에서 **경험**이 부족했지만 Manuel Neuer(독일 골키퍼)보다 **자신감** 있어 보였다.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Chapter 4

어떤 것을 온전히 알려거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봐라.

-트라이언 에드워즈-

이번 챕터에선 우리는 에디터가 되어 다른 사람의 글을 교정해 볼 겁니다. 따로 문제집이나 시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저희 학생들이 쓴 글을 고쳐볼 겁니다. 저희 학원 학생도 다른 학생이 쓴 글을 서로 교정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는 잘못 봐도 남의 잘못은 참 잘 찾아내기 때문이죠. 학습 효과는 같지만 더 흥미로운 활동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챕터를 디자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교정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남의 글을 교정할 때처럼 비슷한 문제는 없는지 더 고민해서 쓰게 되죠.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면 글은 더 좋아집니다.

Becoming An Editor #2

[중급]

이제부터 중급자 지문을 볼 겁니다. 중급자 지문에도 2 ~ 3개의 단순 오류나 어색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초급자 지문 때와 같습니다.

에디팅 순서:

1. 오류가 포함된 글을 보며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 교정
2.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원본 글과 제가 수정한 글을 비교 확인
3. 세 번째 페이지로 가서 수정된 이유를 참고하고 자신의 것과 비교

[중급자 지문 #1] BTS를 좋아하는 중 1 여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쓴 글입니다. 어색한 부분을 찾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정해 보세요.



Who is BTS?

BTS is composed of seven people: RM, Jin, Suga, J-hope, Jimin, V, Jungkook. They belong to BigHit Entertainment. They are a global group, entering the Billboard chart and winning prizes. They made their debut in 2013 and released numerous famous songs.

[비교]

<오류가 포함 된 글>

Who is BTS?

BTS is composed of seven people: RM, Jin, Suga, J-hope, Jimin, V, and Jungkook. They belong to BigHit Entertainment. They are a global group, entering the Billboard chart and winning **prizes**. They made their debut in 2013 and **released** numerous famous songs.

<수정 된 글>

Who is BTS?

BTS is composed of seven people: RM, Jin, Suga, J-hope, Jimin, V, and Jungkook. They belong to BigHit Entertainment. They are a global group, entering the Billboard chart and winning **awards prizes**. They made their debut in 2013 and **have released** numerous famous songs.

[해석]

(생략) They are a global group, entering the Billboard chart and winning **awards prizes**.

*BTS가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할 때, 'award'는 관찬인데 'prize'는 왜 어색할까요? 'award'는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패나 상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prize'는 경쟁, 경기, 또는 복권에 당첨되서 상품이나 돈 처럼 실물을 주는 거죠. 글에선 BTS가 가수로서 전 세계 인들에게 즐거움을 준 '공로'를 인정해서 감사패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첨된 느낌의 'prize'가 아니라 공로에 대해 받는 'award'로 표현한 거죠.

They made their debut in 2013 and **have released** numerous famous songs.

*과거 형태인, 'released'로 표현하면 이미 끝난 일이라서 앞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BTS는 3곡을 발표했었다' 처럼 마치 더 이상 새로운 노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역사적 기록같은 느낌을 줄 수 있죠. 보통 활동이 이미 끝난 그룹 비틀스 같은 가수에 대해 얘기할 때는 '30곡을 썼다' 처럼 과거로 씁니다. 그 사실이 변경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BTS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서 추가로 노래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완료된 내용은 그렇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현재 완료로 쓴 거죠.

Sample version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 <https://nyu.selz.com>

Chapter 5

What's Next?

[What's next?]

완벽한 영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 영어가 틀렸을 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진짜 영작을 하세요. 이를 위한 시작으로 ‘The imPerfect Writing: 불완전한 영작’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담지 못했던, 그리고 글로는 설명하기 힘들었던 내용, 문장 구조, 문법, 어휘 그리고 공부 방식에 대한 소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 강의는 2019년 8월에 제공 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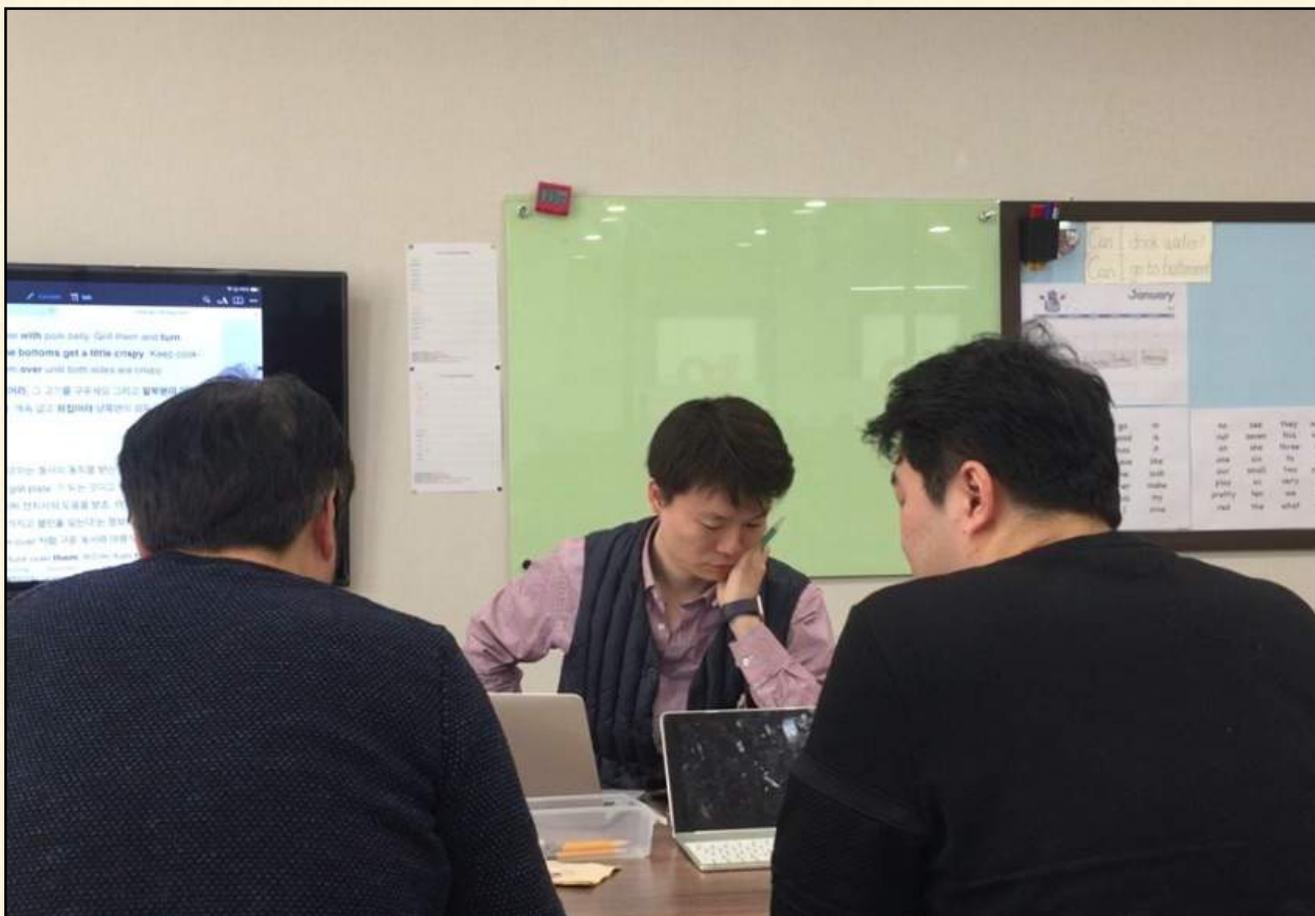


[What's next?]

2019년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드디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영어 강의가 아닌,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토론식 영어 수업입니다. 자신만의 주제로 미니 북을 쓰는 것을 프로젝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자체를 배우는 것뿐 아니라 뉴미디어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방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참여는 페이스북,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해 매 시즌마다 공지가 나갑니다.

Email을 통한 신청: NY2KOR@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NYUEnglish>



[What's next?]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렌디드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 관련 특강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어린 학생뿐 아니라 성인 학습자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특강 영상 모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exctfgjv5mPwy6xVi19NoTc7BLXIU_S

입체적인 입력을 통한

공평하게 똑같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 최적화

[What's next?]

입체적인 학습을 통한 영어 ‘습득’을 대치동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비디오 게임, 스마트 티브이와 음성 인공지능 알렉사를 통해 배움을 진행합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원서를 읽으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자신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아이패드로 영상을 만들고 리서치를 하며 소논문을 쓰기도 하죠.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학습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대치동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학원:

<http://www.newmediaenglish.com>



[What's next?]

저의 첫 번째 책, 'NYU 유학생의 단 하나뿐인 문법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을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설명한 유일한 책입니다. 입체적인 입력과 영어 '공부'가 아닌 '영어 습득'에 대해 말합니다. 인터랙션, 전자사전, 동영상을 사용한 뉴미디어 학습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책 소개 링크: <https://brunch.co.kr/@dohyunkim/77>



[What's next?]

저의 두 번째 책, '전치사의 아름다움'은 영어에서 전치사와 부사가 주는 역할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한 어휘 책입니다.

직접 서점에서 어휘책들을 확인해 보니 마치 복사 붙이기 한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현재 어휘 책들은 왜 모두 복사 붙이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걸까?" "과연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기존 방식의 어휘 책보다 3배 이상 효과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어휘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1. 190개의 영상과 사진을 수록해 영어를 한글 뜻뿐 아니라 단어 고유의 맛을, 향을, 색을, 그리고 표정과 감정을 입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전치사를 규칙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설명한 유일한 책으로 뉴미디어 학습과 인지과학을 기초로 단어를 단순 암기하지 않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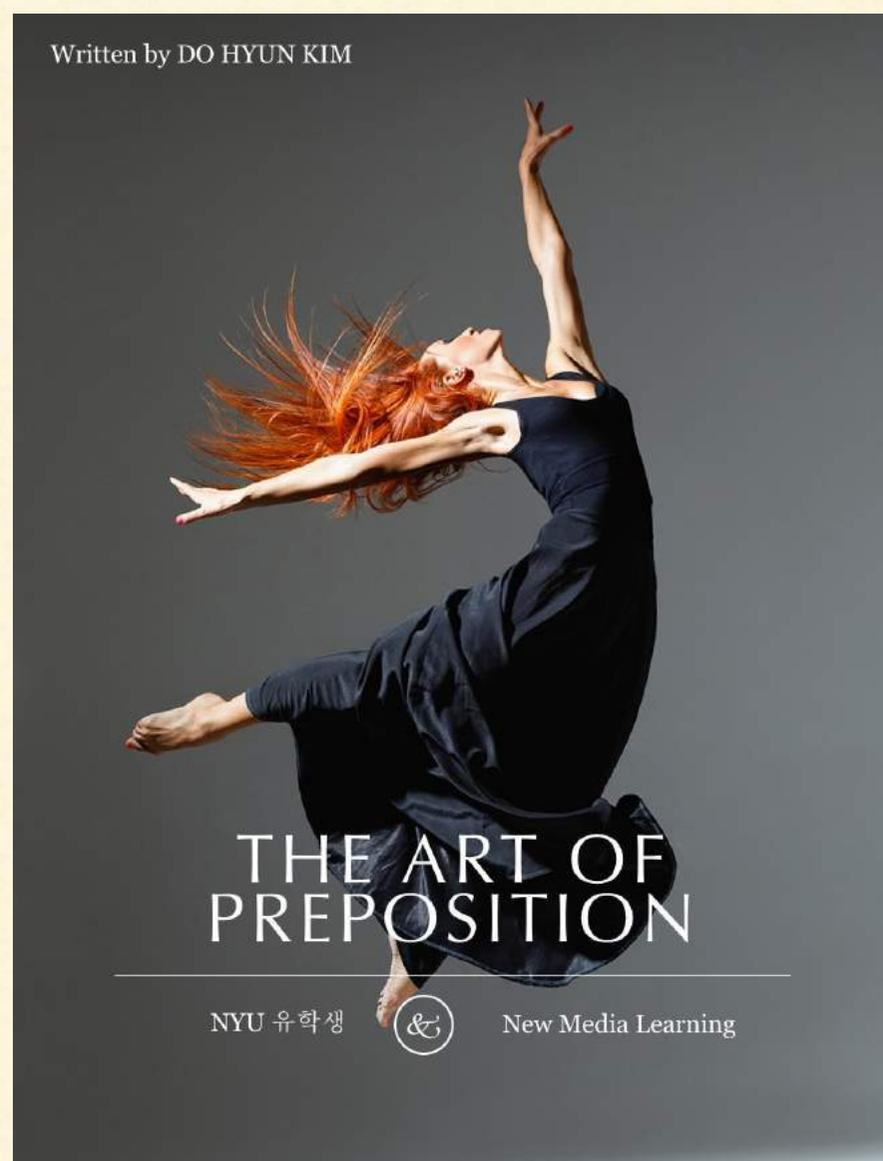
iBook으로 구매하기 링크: [http://selz.co/4kMe2O-w\\$](http://selz.co/4kMe2O-w$)

PDF 버전으로 구매하기 링크: <http://selz.co/EyLXHKuwW>

샘플 다운로드 및 더 자세한 소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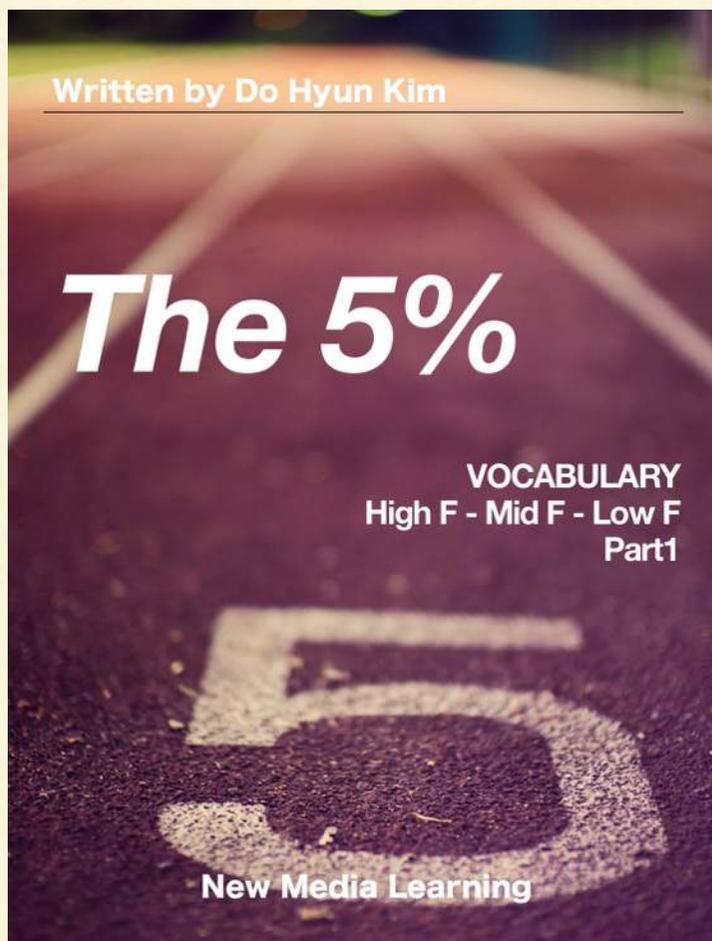
<https://brunch.co.kr/@dohyunkim/109>

책 소개 링크: <https://brunch.co.kr/@dohyunkim/77>



[What's next?]

"원서를 읽고 싶다." 10년간 배웠어도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 한 권 영어로 읽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생각과 달리 1만 단어 수준의 어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3천 단어 수준의 어휘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자주 사용되는 핵심 단어를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고 양만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어휘 책은 사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책 'The 5%'는 핵심적인 단어 단 43개를 선정해 입체적인 입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책 속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고 들으며 습득하게 됩니다.



소개 링크: <https://brunch.co.kr/@dohyunkim/136>

책 구매 링크:
<https://nyu.selz.com>

5% 책에 대한 동영상 해설 강의:
educast.com/course/english/AY85

[What's next?]

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학습 방법과 강의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www.youtube.com/user/LivelongLearning/playlists

The screenshot shows the YouTube channel page for '온라인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At the top, it displays '15,878 subscribers' and '863,921 views'. The channel banner features a purple background with the text 'Learning English, not studying' and icons of a laptop, a smartphone, a monitor, and a game controller. Below the banner, the channel name '온라인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is visible, along with a 'View as: Yourself' dropdown.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Home', 'Videos', 'Playlists', 'Channels', 'Discussion', and 'About'. The video player shows a video titled '미드로 영어 공부, 자막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by 김도...' with a play button overlay. The video description on the right states: '미드로 영어 공부, 자막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by 김도현 뉴미디어 영어', '21,525 views 4 months ago', and provides details about the cont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annel.

출판된 모든 책, 오프라인 강의, 그 외 기타 자료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https://nyu.selz.com>

책, 오프라인 수업, 특강, 공부 방법 등에 문의는
아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세요

NY2KOR@gmail.com

블로그 <https://brunch.co.kr/@dohyunkim>